

공동체 소식



연중 제14주일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수난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매일미사 책 63쪽 참조

■ 이번 주간의 성인축일

7/11: 성 베네딕도 아빠스,

7/13: 성 헨리코,

7/14: 성 가밀로 데 펠릭스 사제,

7/15: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 7월 맨하탄, 로렌스 공동체 미사는 쉽니다.

■ 본당 셀기도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모임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10:00, 본당 나자렛관.

■ 각 구역 반장님들은 반원들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별히 전입 오신 분들에 대해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소리

“사랑이 진리를 필요로 한다면 진리 또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과 진리는 서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 없이는 차갑고, 비인간적이며, 일상의 삶을 답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 삶의 여정에 의미를 주는 진리는 사랑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빛을 줍니다.”

‘신앙의 빛’ 27항 | 그림 임의준 신부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62	216	165	34

주일미사 복사

	시중 복사	향 복사
금 주	이원준 요한	차민서 임마누엘
차 주	정예찬 미카엘	정예진 한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정수한 베드로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킨라스티카
차 주	김대연 요셉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애찬 봉사자

금 주	김시연, 김말차
차 주	문문주, 최은미, 윤지선

헌금 봉사자

금 주	김병철 베네딕도, 강승석 도미니코
차 주	김병철 베네딕도, 김대연 요셉

우리들의 정성

	영성체	헌금	교무금
7/2	62명	409달러	1,780달러
김진미, 조지연, 이영민, 이우영, 박재천, 김호원, 정수환 (총 7세대)			

연중 제14주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7년 7월 9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전용진 로렌스 703.785.0545 lawyjun@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이우석 프란치스코
M: 816.616.0033

재 무: 김병철 베네딕도
M: 913.710.0770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께서 작은 이들에게는 주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약한 이들에게는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난과 자유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을 널리 전하도록 합시다.

그림 묵상

씨 뿌리는 사람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돌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마태 13,4-6.8)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물질이나 욕망으로 쉽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하며 삶 안에서 실천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열매 곧, 관대한 삶, 진정한 자유와 기쁨,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제 1 독 서 : 즈카르야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9,9-10
<보라, 너의 임금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너에게 오신다.>



-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주님은 말씀마다 참되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넘어지는 누구라도 주님은 붙드시고, 꺾인 이는 누구라도 일으켜 세우시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8,9.11-13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천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5-30



온유하고 겸손한 삶



오늘 제1독서에서 즈카르야는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즈카 9,9-17). 포로가 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이들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쟁을 완전히 없애시고, 온 민족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니, 주님의 통치하심은 온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즈카르야 예언자는 이런 일을 시작하는 메시아야말로 진정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 힘 있는 임금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힘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말로 “겸손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니”라는 단어로 본래 핍박받고, 가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진정 힘이 있으신 그분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핍박받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칠십인 역본은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프라위스”라고 번역하는데, 프라위스는 “친절하고 온유한”이라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온유하다”로 번역된 말이 바로 “프라위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복음은 예수님 당신이 바로 즈카르야 예언자가 예언하던 그 메시아임을 밝히는 대목이 됩니다.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되이 오시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주는 메시아라는 점을 밝힌 대목입니다.

실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 21,7에서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이 일이 즈카 9,9와 이사 62,11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마태 21,5)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분께서는 “아니”라는 말이 알려주듯이 핍박받고 철저히 가난한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에게서 배워야지만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멍에는 편하고 짐이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핍박받는 모습, 가난한 모습을 보면 그분의 멍에가 그리 편하고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참 행복을 선언하시면서 당신처럼 “온유한” 사람들만이 진정 약속된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임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마태 5,5).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며, 그 이름 때문에 박해마저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 5,11-12). 오늘 복음은 이러한 삶이 세상 관점에서 볼 때 힘들어 보이지만, 실은 가장 편하고 가벼운 짐을 지는 삶을 강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참되다고 믿는 것은 오직 철부지들에게나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은 이 길을 기꺼이 따라나섭니다. 어찌 보면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만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나서는 철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하듯이 하느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선택된 이들만이 성령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어 진정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이들만이 진정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복음환호송)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

사도행전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활약상을 전해 줍니다. 사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가르침을 선포하며, 같은 전례를 행하였습니다. 특히 같은 믿음으로 사랑의 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이어 후세에 전했습니다. 그 후 교회는 믿을 교리를 통일하기 위해 사도들에게서 전수받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간추려 입교예식과 전례 중 신앙고백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신경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확정되기까지는 약 3백 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는데 그동안 내용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여러 형식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전례 중에 사용하는 사도 신경과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입니다. 이 신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인 교회’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의 보살핌으로 한결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나 다 같은 하나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모두가 같은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교회’란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 백성으로 모으신 겨레이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약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나라이며,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어 그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 오는 교회’란 신앙의 내용과 공동 예배 예식인 전례가 사도로부터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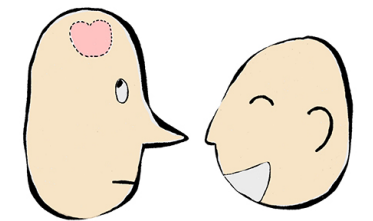
승된 것이며 특히 교회 통치가 사도 베드로의 정통 후계자인 로마 주교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관할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같은 교리를 신봉하고 같은 전례를 거행하며 로마 주교, 즉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로 모시는 특성을 가지는 교회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이 특성을 종합한 것이 ‘가톨릭’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를 ‘보편되다’라는 의미의 옛말 ‘공번되다’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빈첸시오 성인은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서 믿어온 것”이바로 공번된 것, 가톨릭의 신앙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한민 마르첼리노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



지혜보다 슬기보다 좋은 절없음

사랑을 머리로 하는 사람과 사랑을 마음으로 하는 사람
사랑을 분석하는 사람과 사랑을 하는 사람
하느님을 분해해보려는 사람과 하느님을 좋아하는 사람
하느님을 가르치는 사람과 하느님께 데리고 가는 사람
이유를 만드는 사람과 이유 없음에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
지혜보다
슬기보다
절없음이 아름다운 이유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니.(마태 11,25)

